

치 사

봄기운으로 생명이 움트는 좋은날에 이곳 임진각에서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파주시와 육군1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해주신 내외귀빈들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는 남과 북이 따로 없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통일시대를 열어갈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도 남한의 어린이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미래세대입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UN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아직도 만성 영양결핍 상태의 어린이가 10명 중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양부족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고 남한의 7배에 달하는 영유아 사망률을 보인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북 간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향후 통일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오늘 이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오랜 영양결핍과 질환에 힘들어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의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운 시일에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지 70년이 다되도록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때가 한시도 없었습니다. 분단체제는 남과 북 모두에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분단의 고통을 대물림해서는 안됩니다.

다행이도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민간교류와 인도적인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행복과 희망의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바라며, 즐거움으로 함께한 모든 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3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